

CULTURE 대조적인 법정드라마 두 편

권력 좇는 오수재보다 소시민 대변하는 우영우에 열광

요즘 방송중인 두 편의 법정드라마가 눈길을 끈다. 채널 ENA의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SBS의 '왜 오수재인가'. 둘 다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성변호사를 주인공 삼았는데, 성격은 사뭇 대조적이다. 법조물에선 이제껏 본 적 없는 착한 드라마와 법조판 '팬트하우스'라 할 만한 독한 드라마의 한판 대결이다.

'우영우'는 시청률 0.9%로 시작해 4주 만에 11%대로 치솟으며 무서운 상승세다. 넷플릭스 비영어부문 글로벌 1위에 오르고 미드 리메이크까지 타진되고 있다. 현재 자폐 이사를 내세웠던 KBS 드라마 '굿닥터' (2013)가 ABC에서 리메이크되어 시즌 5까지 이어지며 전미 시청률 1위를 찍기도 했으니, '굿닥터'의 변호사 버전이라 할 '우영우'의 미래는 탄탄해 보인다.

'오수재'도 방영 2주 만에 시청률 10%를 돌파하며 화제였다. 그런데 초반의 매운맛이 로맨스로 희석되며 6%대로 떨어진 채 이번 주 종방을 앞두고 있다. 초반 흥행을 책임진 건 오수재라는 '센 케' 자체였다. 고졸이지만 유리천장을 뚫고 꼭대기에 오르겠다는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욕망덩어리. 온갖 비리와 악행으로 점철된 거대권력의 '설거지'를 위한 권모술수가 주특기다. 밝고 쾌활한 캔디형 캐릭터로 사랑받던 서현진의 흑화도 불거려왔다. 대형 로펌의 쟁쟁한 남자 선배들을 독기로 제압하며 요즘 여성들의 현실적인 욕망의 대변자가 된 것이다.

대기업 회장과 로펌 총수, 대선후보의 삼각 권력 카르텔을 깨발리는 고전적인 사회고발 드라마인

데, 막장의 요소를 두루 갖췄다. '팬트하우스'처럼 고층빌딩에서 추락해 조형물에 내리꽂히는 끔찍한 살인사건을 시작으로, 10년 전의 또 다른 살인과 의문의 교통사고, 출생의 비밀까지 자극적인 떡밥들이 한데 얽힌다. 거기에 대장동 게이트 등 실제와 유사한 정치적 이슈들을 치밀하게 버무려 리얼리즘 화풍의 빅픽처를 완성해 간다.

반면 '우영우'는 일견 판타지다. 자폐인의 가족들이 '보기 불편하다'는 목소리를 낼 정도로, 자폐를 가진 변호사가 대형 로펌 식구들의 따뜻한 지지 속에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한다는 건 세상을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싶은 동화에 가깝다. 하지만 박은빈의 특부러진 연기로 장애조차 매력으로 승화시킨 주인공이 부각됐을 뿐, '이상한' 캐릭터보다 '우영우'를 신선하게 만드는 건 소재로 쓰인 생활밀착형 사건들이다.

치매 남편을 돌보다 순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노인, 결혼을 둘러싼 거액의 증거와 진정한 사랑 사이 길을 잃은 레지비언, 자랑스런 의대생 장남의 자살을 인정하기 싫은 부모 자존심의 희생양이 될 뻔한 자폐인 차남, 브로커에게 떼인 돈을 받아내려 폭력을 휘두른 탈북자, 신도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도로를 내줘야 하는 그린벨트 주민들... 법조물의 전형인 거대악 처단도 아니고, 실화에 바탕한 소수자와 소시민의 일상에 시선을 돌린 것이다. '굿닥터'가 병증의 핵심을 꿰뚫는 자폐 의사의 천재적 진단 능력 너머에 저마다 사연을 가진 환자와 가족의 관계를 조명한 휴먼드라마였던 것과 같다.

둘 다 현란한 법률 지식을 장착했지만, 거대악과 맞짱뜨는 마라맛 '오수재'보다 한참 쉬운 상대와 싸우는 순한맛 '우영우'가 민심을 얻은 건 왜일까. 거대권력에 맞서는 척 또 다른 권력으로 군림할 오수재가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우리는, 사소한 듯 리얼한 우리 주변의 문제들을 창의적으로 해결해 가는 우영우를 응원하고 싶은 것 아닐까.

이영미 대중문화평론가는 "거대한 권력형 범죄 피해자의 뻔한 복수극이 지켜워진 사람들에게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속 반전의 계기를 갖는 우영우의 활약이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면서 "가족이나 사랑이 구원이 안 되는 세상에서 가족드라마나 애정물도 힐링이나 일상적 이야기가 대세가 된 것처럼, 권력형 비리를 드라마가 차단해봤자 바뀌지 않는 세상에서 법조물도 소소한 위로를 주는 이야기에 눈 돌리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한가지 흥미로운 건 두 작품 다 남주인공을 제치고 제3의 남성 캐릭터들이 '떡상'하며 시청자들의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영우는 '한바다 최고 인기남'인 송무림 이준호(강태오)와 러브라인을 그리고 있지만, 시청자들이 사랑하는 건 사수인 정명석(강기영) 변호사다. 부족함이 있는 신입에게 가졌던 선입견을 빠르게 버리고 든든한 격려자가 되주는 시니어 변호사인데, 대단히

소수자 문제 해결 '순한맛' 우영우

자폐 변호사 활약 다룬 동화적 설정
소소한 위로 주는 이야기 인기 끌어

거대악과 맞짱 '마라맛' 오수재

유리천장 뚫겠다는 욕망의 대변자
권력형 범죄 뻔한 복수극 흥미 잃어



▲ 오수재의 강적 최태국 역의 허준호(왼쪽)
▲ 우영우의 사수 정명석 역의 강기영(왼쪽)
(사진 SBS, 에이스토리)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쩌면 나에게도 나타날지 모르'는 현실적인 멘토의 얼굴을 하고 있기에 사랑스럽다.

오수재도 멜로 상대 공찬(황인엽)보다 최태국(허준호) 회장과 함께 할 때 시청자의 텐션이 올라간다. 최태국은 거대악의 실체이자 오수재를 어리바리 국선변호사에서 1등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키워준 막강 사수다. 공찬은 사건의 단초가 되는 엄청난 과거를 품고 있지만 복수의 실행자가 되지 못하고 오수재에게 밝이나 운전을 해주는 힐링 캐릭터에 불과하다. 시청자들은 연하남과의 '뽕급포 러브라인'에 경악하며 체념을 돌렸고, 오히려 빌런인 허준호의 사악한 존재감이 시청률을 지탱했다. 법조물에 멜로는 거주장스런 장치일 뿐, 내가 오르려는 '꼭대기'에 버티고 선 거대악과의 한판승부에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다.

이영미 평론가는 "초기 직업드라마가 경찰서나 병원에서 연애하기 바빴던 건 드라마 주요 시청자인 당대 여성들에게 애정과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기 때문"이라면서 "경험치가 달라진 요즘 여성들로선 직업물에 연애가 끼어들어 초점을 흐리면 방해받는 느낌이다. 러브라인은 코믹 릴리프 정도의 실틀을 주는 역할일 뿐, 직장 상사나 핵심 빌런의 역할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조물의 계보에서 '오수재'의 차별점은 여성인 주인공이 정의를 대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권력지향, 황금송배로 유리천장을 뚫은 욕망의 대변자가 거대악을 짓밟고 올라서느냐 여부에 정의가 종속될 뿐. 그런데 결말이 궁금하지 않다는 게 한계다. '우영우'도 마냥 순한 맛은 아닐 수 있다. 출생의 비밀이 벗겨지면서 반전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로펌 업계 1위인 태산과 2위 한바다의 경쟁구도 속에서 무려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태수미와 우영우의 대결이 어떤 빅픽처를 드러낼까. '우영우'가 다른 건, 예측불가란 점이다. /유주현 기자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우영우 역의 박은빈



오수재 역의 서현진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제보청기
Since 1982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